



경기도기념물 제219호
둔촌 이집 선생의 올곧은 선바정신을 기리는

제10회

둔촌 (遁村) 문화제

· 참배식 2025. 11. 1.(토) 오전 10시 30분 / 둔촌추모재(아트빌A 뒤)

· 문화제 2025. 11. 1.(토) 오후 2시 / 성남시청 온누리홀(1층)

YouTube
"성남문화원"
주최: 성남문화원
후원: 광주이씨



Seongnam Culture

성남문화

2025. 12 하반기 vol. 42



참여의 문화, 나눔문화의 산실
성남문화원



지난 여름
(제19회 꿈을 향하여 전시회 전시 사진)



미술가 이 정 애

- 미술인의날 미술인정예작가상 수상
- 제18회 대한민국 힐링미술대전 우수상
- 성남문화의집 서양화 강사

CONTENTS

1. 표지
2. 목차
3. 2026 신년사
4. 하반기 문화사업
 - 2026 천제봉행 및 해맞이 행사
 - 8·10 성남(광주대단지)항쟁 54주년 기념식
 - 단기4358년 개천절 및 제30회 단군제 도당굿
 - 제27회 경기도민속예술제 '이무술집터다지는소리'
 - 제10회 둔촌문화제 및 제20회 둔촌중국백일장
 - 2025 성남 향토민속놀이 합동공연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 〈오리돌 농악〉
 - 제30회 학술회의
 - 2025 성남학아카데미 / 성남문화연구 32호 발간
 - 제28회 강정일당상 시상식
 - 제34회 성남사랑글짓기 시상식
 - 지역상생프로젝트 '숨은 공방 찾기' 성과전시회
 - 성남문화상징 표지석 설치 2차 사업
 - 2025 문화가족 송년의밤
 - 성남시사 50년사 발간기념식
 - 문화가족 전시·발표회 성료
15. 문화원 이모저모(문화원 소식, 임직원 주요활동)
19. 성남시민과 함께 하는
향토유적지순례 & 성남학아카데미 현장답사
20. 사진으로 보는 성남문화원

성남문화원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성남문화원 에서 관람하세요





謹賀新年

‘문화의 힘으로
시민을 하나로 잇는 해’



김 대 진
성남문화원장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문화가족 여러분.
희망찬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성남 문화융성의 중심기관' 성남문화원은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지키고,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이는 문화원을 아끼고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관계 기관, 그리고 헌신적으로 애써주신 임직원 여러분 덕분입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은 병오년으로 붉은 말띠 해입니다. 십이지신 중 일곱 번째 동물인 말의 해로, 60갑자 중 43번째에 해당합니다. 병(丙)은 태양처럼 밝고 뜨거운 기운을 나타냅니다. 오(午)는 한낮의 태양처럼 가장 왕성한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두 기운이 합쳐져 2026년은 열정과 활력이 넘치는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해에도 저희 성남문화원은 '옛것을 통해 새로움을 창조한다.'라는 '온고창신'(溫故創新)의 정신으로 '전통문화 발굴, 지역문화 창달과 국내외 교류, 문화예술 평생교육의 요람'으로,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도시 성남'을 만들어 가는 데 중심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성남문화의집, 서현문화의집, 성남문화학교를 모범적으로 위탁 운영하며, 다양한 문화 강좌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부설)성남학연구소와 성남문화해설사회는, 특히 미래 세대에게 성남의 역사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도록 '내 고장 성남 바로알기 교육과 전통문화 체험 활동을 더욱 강화 하겠습니다.

2026년은 변화와 도전 속에서도 '문화의 힘으로 시민을 하나로 잇는 해'가 될 것입니다. 성남문화원은 더욱 열린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 희망찬 성남을 문화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전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백범 김구 선생은 '나의 소원'에서,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높은 문화의 힘'은 나와 우리,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라는 말을 저는 늘 뇌리에 새기고 일하고 있습니다. 병오년 한해에도 '문화로 행복한 성남구현'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밝은 희망과 기쁨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1일

2026 병오년(丙午年) 새해 천제봉행(天祭奉行) 및 판교마당바위 해맞이 행사 개최



성남문화원(원장 김대진)과 판교마당바위 해맞이축제위원회(위원장 박팽수)가, 주최한 「2026년 천제봉행(天祭奉行) 및 판교마당바위 해맞이 행사」가 신상진 성남시장과 300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한 가운데 성료됐다.

이날 행사는 '2026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성남문화원이 주관하는 전통 제례의식인 「천제봉행」을 통해 성남 시의 번영과 풍요, 시민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 뒤, 판교마당바위 해맞이축제위원회가 주관하는 「해맞이 행사」가 이어졌고, 판교유스센터 광장으로 이동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전통문화 공연과 체험행사가 성황리에 펼쳐졌다.

새해 '전통문화 한마당'은 타악연희단 소리울의 '지신밟기'를 시작으로, 한울림 난타 동호회의 '난타 나발·아리랑', 소리의 향기의 '판소리 적벽가 중 새타령' 등 흥겨운 무대가 차례로 이어졌다.

개회 이후에는 김대진 성남문화원장과 신상진 성남시장의 신년 덕담과 함께, 병오년을 맞이하는 의미를 담은 춤자이 무용단의 '기원무', 성남시립국악단의 타악 퍼포먼스 '태동', 연극배우 이주희의 신년 축시 낭송, 성남 출신 뮤지컬 배우 김우성 신년 뮤지컬 가곡 '지금 이 순간' 등이 무대에 올랐다. 또한 신상진 시장, 김대진 원장은 내빈들과 시민이 함께 참여한 '대북 타고'를 통해 새해의 힘찬 시작을 알렸다.

공연과 함께 단군성조연합회의 '신년 운세 보기', 글꽃캘리그래피의 '신년 휘호 및 좋은 글 써주기', 판교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준비한 떡국떡 나누기, 투호·제기차기·윷놀이 등 민속놀이 체험(스탬프 투어), 소원지 쓰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행사 종료 시까지 운영됐고, 특히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에게는 판교 낙생농협에서 저금통을 나눠줬다.

신상진 시장, 김대진 원장, 박팽수 위원장은 "신년 문화행사로, 천제봉행, 해맞이 행사, 전통 문화공연을 통해 시민이 하나 되고 성남시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며 "우리 성남시가 첨단 산업을 기반으로 더욱 혁신 발전하기를 기원하며,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성남시의 태동

8·10 성남(광주대단지)항쟁

54주년 기념식 성료



성남문화원은 「8·10 성남(광주대단지) 항쟁」 54주년을 맞아 8월 8일(금) 오전 10시 성남시청 1층 누리홀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대진 한국문화원연합회장 겸 성남문화원장, 신상진 성남시장, 이제철 성남소방서장, 방영기 성남시새마을회장, 강은옥 여성단체협의회장, 송위혁 성남예총 회장, 이경식 성남시민포럼 상임대표, 홍연화 성남시 공예명장, 모동희 성남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등 많은 문화가족, 시민들이 함께했다.

기념식은 성남시립국악단의 식전 공연, 춤자이예술단의 무용 '8월 토마토 中 못생긴 내 얼굴'을 시작으로 이주희 성남연극협회가 낭송하는 헌시 '성남이여, 행복의 땅이여!', 글꽃캘리그래피협회 유명현, 함미영 서예가의 캘리 퍼포먼스 등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어우러졌다. 또한, 광주대단지 사건 관련 사진전도 함께 열려, 당시의 역사적 현장을 시민들과 공유했다. 사진전은 8월 14일(목)까지 성남문화원 로비에서 전시됐다.

1971년 8월 10일, 당시 광주군 중부면(현 성남시 수정·중원구)으로 강제 이주당한 5만여 명의 주민들이 생계대책과 세금 감면 등을 요구하며 벌인 대규모 시위는 이른바 '8·10 광주대단지 항쟁'으로 불린다. 이는 성남 제1~3공단 조성과 도시 기반 형성의 계기가 되었으며, 1973년 7월 1일 성남시 승격의 촉매제가 되었다.

성남문화원은 그동안 이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4년 제9회 학술회의 「광주대단지사건의 역사적 재조명」을 시작으로, 2011년 40주년에는 관련 증언자료를 수집하고, 2013년에는 「광주대단지사건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또한, 2020년 제25회 학술회의 「광주대단지 주민 생활 공간과 도시 형성」, 2021년 제26회 학술회의 「광주대단지(성남)의 문화재 현황과 활용방안」을 주제로 학문적 성과를 이어왔다. 최근에는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8·10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성남 항쟁'의 의미를 계승하고 있다.

한편, 성남시에서는 2024년 6월 '8·10 성남(광주대단지) 민권운동'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개최했으며, 2024년 12월 16일자 성남시 조례로 '8·10 성남(광주대단지) 항쟁'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단기4358년 개천절 기념식 제30회 단군제·도당굿 문화축제 성료

성남문화원 주최, 단군성조연합회(회장 이경식)가 주관한 단기 4358년 개천절 기념식 및 제30회 단군제·도당굿 문화축제가 10월 3일(금) 태평공원 내 야외무대에서 성료됐다.

이날 행사는 민족의 시원(始原)을 기리는 자리로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자리로 단군성조연합회의 '선의식'과 '분향'으로 문을 열고, 가수 '고다훈, 김연희', 경기민요'소리친구회', '타악연희단 소리울'의 길놀이가 어우러진 식전 공연으로 흥겨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어지는 개천절 기념식은 김대진 성남문화원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의장 직무대리),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개천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본 행사인 도당굿 문화축제에서는 성남시립국악단의 '타악퍼포먼스 태동', 소리친구회의 전통무용 '한량무', 이향우 경기민요단의 민요무대가 펼쳐지며, 이어 오진수 국가유산 경기도도당굿 전승교육사의 '산거리', 나채옥 국가유산 새남굿 이수자의 '상산거리', 정수용 국가유산 새남굿 이수자의 '불사거리', 송옥순 열두작두장군거리보존회 이사장과 회원들의 '작두거리' 등 다채로운 굿거리가 이어졌다.



27회 경기도민속예술제 '성남 이무술집터다지는소리' 성남시 대표로 참가 '북돋음상' 수상

성남문화원은 11월 2일(일) 고양특례시 일산호수공원에서 경기도문화원연합회(회장 김용규) 주최로 개최된, '제27회 경기도 민속예술제'에 성남시 대표 '이무술집터다지는소리'로 참가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고양문화원이 주관한 이번 예술제는, 기존의 경연 방식을 탈피해 31개 시·군이 함께 어우러지는 '대동놀이' 형식으로 펼쳐져 큰 호응을 얻었다. '경기도 대표 축제'로의 도약을 선언하며, 화합과 대동의 가치에 집중한 새로운 시도가 돋보였다는 평가다.

김대진 한국문화원연합회장 겸 성남문화원장은 11월 2일(일) '제27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폐막식에 참석해 서 시상과 함께 축사를 했다. 김 회장은 축사를 통해 "제가 경기도연합회장 시절 31개 시·군 문화원별 현장 심사로 개최한 바 있다며, 화합과 대동의 가치에 집중한 이번 민속예술제가 지역별 민속예술들이 더욱 발전 계승해 나가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 대표팀으로 참가한 성남시 '이무술집터다지는소리'는 북돋음상을 수상했다.



성남의 큰어른 둔촌 이집 선생 추모 '제10회 둔촌문화제' '참배례'와 '시(詩)·무(舞)·악(樂)의 향연'으로..

성남문화원은 광주이씨대종회(회장 이주영)와 함께 11월 1일(토) 2025년도 '제10회 둔촌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 30분 둔촌 선생 추모제(追慕齋)에서 참배와 헌화례, 오후 2시부터는 성남시청 1층 온누리홀에서 시(詩)·무(舞)·악(樂)이 어우러진 예술 공연이 펼쳐졌다.

1부 하대원동 둔촌 선생 추모제에서 진행된 '참배 및 헌화례'는 성남시립국악단의 아쟁독주 '하얀나무'와 대금 독주 '청성곡' 연주, 유명한 서예가의 '정훈' 캘리그래피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특별한 콜라보 공연으로 시작됐다. 또한, 올해는 문화해설사의 역사특강과 청소년 50명을 대상으로 한 '내 고장 산책 <둔촌 이집 선생 편> 역사 탐험 OX 퀴즈' 프로그램이 새롭게 마련됐다.



2부는 오후 1시 성남시청 1층 로비에서 식전 체험행사가 열렸다. 성남여성의용소방대 '심폐소생술(CPR) 시범 및 체험', 박지혜 한의학 박사의 '한방차 시음회'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어 오후 2시, 온누리홀에서는 시(詩)·무(舞)·악(樂)의 향연으로 문화원 동아리 타악연희단 소리울의 사물 판굿, 금빛춤사랑의 '축원무', 성남시립교향악단 현악 앙상블 '축배의 노래' 연주, 정금란춤 전승보존회의 '부채춤', 평양민속예술단의 '노래·무용·아코디언' 특별공연이 펼쳐졌다. 이주희 성남연극협회장의 둔촌 선생 작시, 둔촌 백일장 입상작을 낭송, 성남시립합창단은 둔촌 선생을 추모하며 작곡된 '큰기침 소리'를 선보였으며, 이어 방영기 명창(국가무형유산 선소리산타령 전승교육사)과 이수자인 딸 방글의 '서도민요', 성남시립국악단의 '하늘 빛 그리움, 무태평', MTA태권도 성남하대원점의 '태권무·격파', 문화의집 노래교실 회원 공연이 대미를 장식했다.

제20회 둔촌 중국 백일장 중국 심양시 조선족 제1중학교 강당에서 성료

한·중 수교 33주년 기념 및 한국 성남시·중국 심양시 국제 자매결연 27주년을 기념하는 2025년도 <제20회 둔촌 중국백일장>이 10월 26일(일) 심양시 조선족 1중 강당에서 열렸다.

한국 성남문화원과 중국 심양시 조선족교육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성남시와 광주이씨 대종회가 후원한 이번 백일장 행사에는 김대진 한국문화원연합회회장 겸 성남문화원장이 참석해 인사말을 했고, 이주영 광주이씨 대종회장은 영상으로 축사를 대신했으며, 박영철 심양시 조선족교육협회 회장이 환영사를 했다.



이 자리에는 손성종 재심양 대한체육회장, 김정진 성남문화원 사무국장, 홍진영 서현문화의집 관장, 조선족 1중 리영진 교장, 서탑 조선족소학교 교장 등 조선족학교 부교감, 조선어 교사들과 조선족 소학조, 초중조, 고중조 참가 학생, 선양한국국제학교 학생 21명 학교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함께했다.

백일장 주제는 당일 현장에서 발표된 '나만의 비밀 이야기',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것', '비빔밥', '시월의 노래' 등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글을 작문 했다. 백일장 심사는 룡녕성 조선족문학회 김창영, 임평산 등 6명의 중국 측 심사위원과 한국 측에서는 중국 동북 3성 한국인연합회 김영식 사무부총장(청초당 한글학교 교장)이 함께 심사한 결과, 총 60명의 학생들이 입상 하였으며, 각각 상장 및 상금이 수여됐다.

2025 성남 향토민속놀이 합동공연 성료 - 이무술집터다지는소리. 오리뜰농악 -



성남문화원은 9월 20일(토) 오후 2시, 중앙공원 수내동 가옥 야외광장에서 성남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민속놀이 합동공연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성남오리뜰농악보존회(이사장 강승호)와 이무술집터다지는소리보존회(이사장 방영기)가 주관하며, 성남시 향토유산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와 '오리뜰 농악'을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뜻깊은 행사였다. 특히 공연에 앞서 오후 1시부터 '이무술집터다지는소리보존회'가 주관하는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이영역기'가 사전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시민들이 직접 전통 생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다.

이번 합동공연은 성남시민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공연으로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의 웅장한 장단과 공동체 의식, '오리뜰 농악'의 신명 나는 가락과 다채로운 놀이마당이 어우러져 시민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선사했으며, 풍년놀이, 농사놀이, 개인놀이(쇠·버꾸·상모놀이) 등 전통의 멋과 흥이 살아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어졌다.

김대진 성남문화원장은 "올해는 성남을 대표하는 두 민속놀이를 성남문화원이 위탁 운영하는 분당 중앙공원 앞 경기도 문화유산자료인 수내동 고가 앞에서 함께 선보이는 첫 무대로 전통 속에 담긴 협동과 화합의 정신을 시민들과 나누는 뜻 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앞으로도 성남문화원은 향토민속놀이의 보존·계승을 넘어, 시민과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전통문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남문화원, 제30회 학술회의 광복80주년 기념, 성남의 독립운동가 재조명



성남문화원(원장 김대진)주최, 부설 성남학연구소(소장 최명숙) 주관으로 11월 12일 문화원 강당에서는, '광복 80주년 기념, 성남의 독립운동가 재조명'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김대진 한국문화원연합회장 겸 성남문화원장, 광복회 성남시지회 심현웅 사무장, 성남출신 남상목 의병장 증손자 남수현, 윤치장 의병장 증손자 윤교상, 한백봉 독립운동가 손자 한동열, 조병로 남한산성연구회장, 최만순 성남경기도민회장, 모동희 성남시 50년사 편찬위원회 상임위원, 홍진영 성남서현문화의집 관장, 한만길 청주한씨 장헌공파증중회장, K문화독립군 주세페김 대표, 조남두, 정태열 성남학연구위원 등과 광복회원, 성남문화해설사 회원들이 함께했다.

이날 학술회의는 성남지역의 항일운동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독립 정신을 계승해 후세에 전할 학문적 토대와,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새롭게 조명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진 성남문화원 사무국장(김도규의병장 증손자) 개회식 사회로, 김대진 원장의 개회사, 내빈 소개 후, 김용달 광복회 학술원장이 「성남의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를 주제로 기조 강연과 좌장을 맡았고, 제1주제는 김명섭(단국대 동양학연구원)박사가 「성남지역의 의병 항쟁과 무명 의병들」, 제2주제는 김대용 여주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이 「경기도 광주군 성남지역 3·1운동과 독립운동 인물」, 제3주제는 서승갑 前 단국대 강사가 「3·1혁명 이후 성남 독립투사의 조망」에 대해 발표했다. 종합 토론에는 김병기 단국대 前 강사, 김도훈 교원대 연구교수, 강정훈 위례역사문화원연구소 이사가, 성남 지역 항일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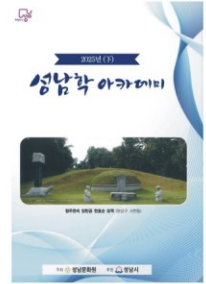


2025 성남학아카데미 하반기 성료

성남문화원은 8월 27일부터 '2025 성남학아카데미' 하반기 수강생 40명을 선착순 모집하여, 9월 3일(수) 오전 10시 하반기 첫 수업을 시작으로 12월 24일(수) 총 16회차 강의, 현장답사 1회를 끝으로 하반기 성남학아카데미가 종료됐다.

성남학아카데미는 성남의 역사적 전통과 문화적 배경을 기반으로 경제·사회·문화·복지 등 지역사회 전반을 포괄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으로, 시민들에게 향토애를 심어주고 문화시민으로서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을 이해하고, 탐구하는데 중점을 두고있다.

성남문화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학문적 교양 증진과 지역 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한 다양한 강좌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성남문화원 (부설)성남학연구소 <성남문화연구 제32호> 발간

성남문화원 (부설)성남학연구소가 성남시 승격 52주년을 기념하며 '성남문화연구 제32호'를 발간했다.

제32호에는 김용달 연구위원(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전문위원)의 '광산김씨 충정공 김약시파의 성남 세가와 변천', 김주홍 연구위원(전 문화재청 사적분과 전문위원)의 '성남 천림산봉수 폐지 고찰', 서철수 (사)한국전통지리학회 상임이사의 '성남시 도로명 부여 실태에 관한 연구', 조남두(신구대학교 명예교수)의 '문화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최명숙(성남시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의 '문학 속의 삼학사 연구', 홍대한 연구위원의 '100년 전 기억, 을축년 대홍수' 등의 논문이 수록됐다.



성남문화원 제정 제28회 강정일당 상 경기도지회 고향생각주부모임 및 성남농협 정우숙 회장 시상

성남문화원은 성남시 향토유산 제1호인 조선 후기 여류 문인이자 학문과 덕행의 상징인 강정일당(1772~1832)의 정신을 기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매년 시상하는 '강정일당 상'의 제28회 수상자로 고향생각주부모임 경기도회 및 성남농협 정우숙 회장이 선정됐으며, 시상식은 10월 20일(월) 오후 2시 성남시청 한누리홀(3층)에서 개최됐다.

정우숙 회장은 성남농협 여성대학 16기(2013년) 수료 이후 꾸준한 지역 봉사와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차병원 외래환자 안내 봉사를 시작으로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식당 봉사, 독거노인·한부모·조손·다문화가정 생필품 지원,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 전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이웃사랑을 실천해왔다.

2023년에는 경기도지회 고향생각주부모임 회장으로 선출되어,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회원들과 화합하며 여성의 권익신장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7, 2019년 성남농협 조합장 표창', '2020년 경기도지사 표창', '2021년 성남시 양성평등상', '2023년 경기도지사 표창' 등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두 자녀를 훌륭하게 양육하며, 어릴 때부터 스스로 사고하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에 힘써 자녀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인물로 성장하도록 이끌었다.

이러한 모범적인 가정교육 사례는 오늘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으로 평가받으며, 지역사회의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성남시 향토유산 제1호 강정일당 추모 제34회 성남사랑글짓기 시상식

성남문화원은 7월 12일(토) 오전 10시 30분 성남시청 너른못(분수대 광장)에서 '제34회 성남사랑글짓기' 대회를 개최했다. 글짓기 대회는 성남시 향토유산 제1호 강정일당을 추모하는 행사로, 청소년들에게 내 고장 성남에 대한 애향심과 자기 정체성을 심어주고, 지역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12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했으며, 분야별 심사위원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작을 선별했다. 올해 글짓기 작품의 주제는 '강정일당 이야기', '성남의 미래', '아버지의 손', '겨울', '닭고깃국은 사람', '여름날의 추억'이었다.

대회 시상식은 10월 20일(월) 강정일당 상 시상식에 이어 개최됐다. 심사는 조선훈(시인), 최명숙(소설가, 동화작가), 이민정(시인), 엄혜자(수필가), 강나현(수필가, 소설가), 오준영(언론인) 심사위원이 엄중하게 작품을 선별했으며, 총 59명의 입상작을 선정, 장원상인 성남교육장상 등을 시상했다.



경기문화재단, 지역상생프로젝트 ‘숨은 공방 찾기’ 지원사업 성료

성남문화원은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추진한 2025년 경기 생활문화 플랫폼 '지역상생 프로젝트 숨은 공방 찾기(feat. 중원구)'의 성과 전시회를 10월 20일(월) 오후 1시, 성남시청 1층 누리홀에서 개최했다.

2025년 경기 생활문화 플랫폼 지원사업은 도내 생활 문화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생활 문화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지원사업으로 지역의 차별성과 정체성을 가진 활동을 지원하는데, 성남문화원은 올해 처음으로 사업에 선정됐다.

숨은 공방 찾기(feat. 중원구)는 성남시 중원구 내 공방을 직접 찾아가 체험하고, 후기를 시민들과 공유함으로써 지역 공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새로운 문화 활동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중원구 내 나전칠기, 도자기, 목공, 라탄, 향수, 캔들, 비누 등 17개 공방의 체험 과정과 결과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고, 각 공방의 위치를 표시한 마을지도와 함께 체험 후기 콘텐츠를 제작해 성남문화원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게시, 전시회 현장에서는 공방 체험 작품과 대표들의 창작 작품이 함께 전시됐으며, 시민 50명을 대상으로 '모루인형 만들기' 특별 체험이 운영됐다.



성남문화상징 표지석 설치 2차 사업 완료 윤치장 의병장 생가 터 등 10개소 설치

성남문화원은 1960년대 말 광주대단지 조성과 197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수많은 문화유적이 훼손·소실됨에 따라, 사라진 성남의 역사와 전통, 문화 정체성을 되찾기 위한 연구와 기록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숙원사업이었던 「성남문화상징 표지석 설치 사업」 2차 사업을 완료하였다.

앞서 2023년에는 판교 출신 동천 남상목 의병대장 생가 터와 3·1만세운동의 현장이었던 분당장터 등 9개소에 문화상징 표지석을 설치한 바 있으며, 2차 사업인 2025년에는 윤치장 의병장 생가 터를 비롯해 제2차 경제개발의 현장이었던 한국도로공사 본사 터, 모란시장 개설비, 구시청 청사 등 도시개발로 사라진 주요 역사 현장 10개소에 표지석을 설치하였다.



성남문화원 2025 문화가족 송년의 밤

성남문화원(원장 김대진 한국문화원연합회장)은, 2025년을 떠나 보내고, 2026년 붉은 말의 해 병오년(丙午年)을 설계하는 송년의 문턱에서, 한 해 동안 문화원 발전에 헌신한 문화가족 임원들과 12월 15일 만강홍에서 '성남 문화가족 송년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성남문화원 사업과 운영 발전에 애써 주신 임직원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김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문화원은 임·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문화원 60여 개의 사업과 문화의 집 위탁사업, 성남시사 50년사 편찬 사업, 수내동 고가 위탁 관리 등 성남 문화융성을 위해 91만 시민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문화사업들을 쉬지 않고 진행하며 달려온 한 해 었다"고 자평하고, 임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노력에 그리고 문화원 발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신상진 성남시장님과 성남시의회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과 영예로운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수상자명단 성남시장 표창

한국문화원연합회장 표창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표창

성남문화원장 표창

박 용 준 성남문화원 감사(성남청소년오케스트라 지휘자)
최 명 숙 문학박사(부설) 성남학연구소장
김 미 경 성남문화의집 행정팀장
유 명 현 '캘리그래피' 강사
박 지 혜 '식탁 위의 동의보감' 강사
조 현 주 성남문화해설사회 부회장
이 영 표 타악연희단 소리울 대표
이 향 숙 성남문화의집 노래교실 강사
황 원 규 성남문화의 집 사원
이 화 연 특별회원(비전성남 기자)
조 은 진 성남문화의 집 사원

성남시사 50년사 발간기념식 성료



성남문화원(원장 김대진)은 12월 29일(월) 성남시청 한누리홀에서『성남시사』(50년사) 발간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간식은 성남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해 지난 반세기 동안의 성남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미래 비전을 집대성한 대규모 기록 편찬 사업의 결실을 시민과 함께 나누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발간식은 김정진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성남시립국악단의 식전 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아름다운 추억',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연주하며 성남 50년의 발자취를 음악으로 담아냈다.

개회식은 50년사 오픈식에 이어 성남시 시사편찬위원회 경과보고를 통해 '성남시사'(50년사) 편찬 과정에 대한 보고가 진행되었고, 신상진 성남시장의 발간사 등 참석 내빈의 축사가 이어졌다.

축하공연에는 이주희 연극배우와 정미래 무용가가 함께하는 콜라보 공연 '성남아리랑'이 펼쳐져 성남의 역사와 정서를 예술로 풀어내었다.

한편, 이번에 발간된『성남시사』(50년사)는 성남문화원이 성남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행한 성남시의 정체성을 집대성한 대표적인 사업이다.

이를 반영해 기존 10년 단위 시사(市史) 편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역점을 뒀다. 이를 위해 주제마다 완전한 단행본으로 분리한 50권의 편집 방식을 도입하는 등 전국 최초의 시도를함으로써 기존 시·군지 편찬과의 확실한 차별성에 역점을 두었다.

특히 이번『성남시사』(50년사)에서는 전근대부터 현대까지 성남을 빛낸 작고 인물 50명을 선정해 '성남 역사 인물 50선'을 다루었고, 성남의 50년과 관련한 역사적 건물, 장소, 사건 등도 '성남 콘텐츠 50선'으로 다룸으로써 성남시 50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성남의 생생한 역사를 담아냈다.

이는 성남의 과거·현재·미래를 입체적으로 담아낸 새로운 형식의 시사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를 위해 편찬위원회의 다수 회의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발간이 이뤄졌다.

이번『성남시사』(50년사) 발간에 대해 김대진 성남문화원장은 "과거 '이주민의 도시'로 불리던 성남은 이제 두 세대를 넘어 시민 다수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진정한 고향이 되었다"라며 "이번 성남시 50년사가 시민 모두에게 공동체의 뿌리와 정체성을 되새기는 기록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성남문화원은 앞으로도 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유산을 보존·연구하며, 시민과 공유하는 다양한 문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2025 성남문화원·성남문화의집 문화가족 전시·발표회 성료



성남문화원은「2025 성남 문화가족 전시·발표회」를 12월 5일(금) 성남문화의 집 3층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성남문화원 (부설) 문화학교와 성남문화의 집 수강생들이 1년간 갈고닦은 예술적 성과를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자리로 수강생들의 활발한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수강생들이 문화적 소속감을 느끼고 활력 넘치는 문화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그 일환으로 올해 전시·발표회 역시 수강생들의 창작활동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행사로 꾸려졌다.

수강생 작품 전시회는 11월 10일부터 12월 26일까지 성남문화의 집 3층 전시실과 2층 로비에서 진행되고 있다. 11월은 (부설)성남문화학교 한문서예, 문인화, 한글서예가 12월은 성남문화의집 한문서예(오전), 서양화, 동양화, 스마트폰 사진교실, 한문서예(오후) 총 8개 강좌가 참여해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며, 시민들에게 수강생들의 기량을 감상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발표회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식탁 위의 동의보감' 강좌의 박지혜 강사와 수강생들이 준비한 전통 한방차 시음회가 열려 관람객들에게 따뜻한 환영을 전했다. 10시 30분부터 '난타(중급, 사물놀이를 위한 북의 향연)' '을 시작으로, '난타(초급)', '경기민요', '판소리', '가야금', '성악교실', '한국무용(월)', '경서도민요', '노래교실', '오리뜰농악·풍물' 총 10개 강좌가 마련돼 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했다.

1978년 개원한 성남문화원은 49년 동안 지역 문화의 중심 역할을 해왔으며, 특히 부설 문화학교를 통해 지난 30년간 5,103명의 문화가족을 배출하며 지역 문화교육에 기여해왔다. 또한 2004년 성남문화의 집 위탁 운영 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2025년 기준 연 2,000여명, 매 분기별 510여 명의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강좌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현문화의집은 2025년 9월1일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다.

김대진 성남문화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이번 전시·발표회가 수강생들에게 1년간 성실히 이어온 창작 활동을 선보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폭넓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제30회 남한산성 문화제 남한산성권역 7개문화원 합동공연

김대진 한국문화원연합회장 겸 성남문화원장은 남한산성 권역(성남, 광주, 하남, 송파, 강남, 강북, 강동) 7개 문화원의 연합공연인 '일곱 빛깔의 향연'이 열린 '제30회 광주시 남한산성 문화제'에 참석해 출연진들을 격려하고 축사를 했다. 이 자리에는 광주 신금철, 하남 임현구 원장 등 7개 문화원장과 문화가족 등이 함께했다. 성남문화원에서는 '춤자이예 술단'이 조선시대에 그려진 여러 미인도를 통해 그림 속에서 풍겨 나오는 여인의 묘한 분 향기를 느끼며 만들어진 춤 '향진무' 공연을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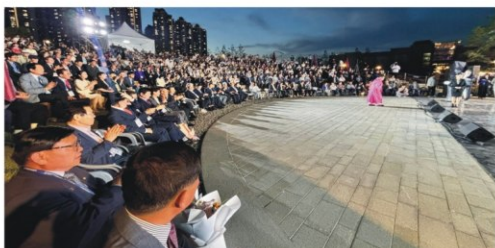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제27회 경기도 문화가족 합동연수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주최로 '제27회 경기도 문화가족 합동연수'가 12월 20일(화) 광명문화원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합동연수에서는 김정진 사무국장, 김미경 행정팀장이 참석했으며, 2025년 경기도 31개 문화원 아젠다 경과보고와 2026년 새로운 목표를 정하는 자리가 되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2025 지역문화박람회 in 김해 참석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문화원연합회, 김해문화원이 주관하는 '2025 지역문화박람회 in 김해'를 성남시민 40명을 포함하여 다녀왔다.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김해 롯데정원형공원(롯데가든파크)에서 전국 232개 지방문화원이 함께 한 이번 지역문화박람회는 경상남도도 김해시가 후원하는 전국 규모 행사로 전시, 공연, 경연, 체험 등 전국의 특색있는 지역문화 콘텐츠를 선보였다.



제19회, 남한산성권(성남·광주·하남)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합동 추모식

2006년 창립된 남한산성문화권협의회(성남·광주·하남문화원)는, 제86회 순국선열의 날(11.17)에,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선열의 얼과 위훈을 기리고자, 「제19회, 남한산성권 순국선열 추모제」를, 17일 하남문화원 강당에서 개최했다. 올해 추모제는 국가보훈부 경기동부보훈지청 후원으로 1부 식전 추모 공연에는 박은진 무용가의 '진혼무', 2부 추모식에는 국민의례, 경과보고, 개회사, 제문 봉독, 추모사, 김미경 시인이 추모시 '그대들의 이름, 빛나리' 낭송, 헌화 및 분향, 하남오페라단의 '비목, 순국선열의 노래' 제창으로 이어졌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 2025 미래유물전 in 동두천 참석

9월 23일(화) 김대진 한국문화원연합회장 겸 성남문화원장은 경기도문화원연합회(회장 김용규) 주최, 동두천문화원(원장 정경철)이 주관한 '미래유물전 in 동두천' 개전식 행사가 열린 동두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에 참석해 문화가족들을 격려하고 축사를 했다. 이 자리에는 박형덕 동두천시장을 비롯해 이인규 도의원, 도내 문화원장, 사무국장, 동두천시 기관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제80주년 광복절 기념식 참석

김대진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 겸 성남문화원장은 8월 15일(금)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성남시 경축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임경수 광복회 성남시지회장, 신상진 성남시장, 안광림 성남시의회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김태년·이수진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이제철 성남소방서장, 유제홍 분당소방서장, 우건식 재향군인회장, 방영기 새마을회장 등 기관단체장, 보훈단체장, 광복회원,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성남시 재향군인회 제73주년 향군의날 기념식

김대진 한국문화원연합회장 겸 성남문화원장은 9월 29일 성남시 향군회관에서 열린 '제73주년 향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하와 함께 건배 제의를 했다. 이 자리에는 임종철 성남시 부시장, 성남 3대대 김경근 대대장과 보훈단체장, 방영기 새마을회 회장, 이경식 성남시민포럼 상임대표, 이화연 비전성남 기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2025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

김대진 한국문화원연합회장 겸 성남문화원장은 10월 1일 (수) 성남시 새마을회(회장 방영기)가 울동 새마을운동중앙회 운동장에서 개최한 '2025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에 참석해 새마을지도자들을 격려하고 축사를 했다. 이 자리에는 신상진 성남시장, 안광림 시의회 부의장, 김태년, 김은혜 국회의원, 시·도의원, 기관단체장 등 내빈 새마을지도자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어서 이무술집터다지는소리 보존회 이사장인 방영기 국가 무형유산 선소리산타령 전승교육사의 총연출로 '2025 이무술집터다지는소리 정기공연'이 열렸다.



제1차 경기역사인물포럼 병자호란의 충절, 삼학사 재조명 세미나

최명숙 성남문화원 (부설)성남학연구소장은 9월 5일(금) 평택시 배다리도서관에서 개최된 제1차 경기역사인물포럼 '병자호란의 충절, 삼학사 재조명' 세미나에서 '문학 속의 삼학사'를 심도 있게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평택문화원, 평택학연구소, 경기역사인물포럼이 주최하고 경기도 문화원연합회, 광주, 용인, 성남문화원이 후원했다.



경록지승보존연구회 법고창신 지승·한지공예 전시회

경록지승보존연구회(회장 홍연화, 성남시 공예명장 제1호)가 주최하고, 성남문화원이 후원한 '법고창신 지승공예 한지공예' 특별강좌 결과물 전시회가 7월 24일~ 25일 성남 시청 1층 누리홀에서 개최됐다. 작년 2024년에 이어 두번째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인 지승공예(장미 강사), 한지공예 강좌(현정옥 강사)는 4월부터 총 20회 특강과 수강생들의 결과물이 전시됐다.



해공 신익희 선생 탄신 131주년

김대진 한국문화원연합회장 겸 성남문화원장은 광주문화원(원장 신금철)주최로 7월 11(금) 신익희 선생 생가에서 열린 '해공 신익희 선생 탄신 13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하를 했다. 이날 행사에는 방세환 경기광주시장을 비롯해 소병훈·안태준 국회의원, 허경행 시의회 의장, 신금철 광주문화원장, 임현구 하남문화원장, 신동명 강동문화원장, 전보삼 만해기념관장, 문화원 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창립 26주년 기념 성남시민포럼 세미나

창립 26주년 기념 성남시민포럼(상임대표 이경식) 세미나가 9월 24일(수)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김대진 원장은 세미나에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이날 세미나는 급변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지역사회 발전의 중심축으로서 시민사회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성남시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방영기 부원장 새마을훈장 수상

방영기 부원장이 11월 18일 부산에서 진행된 '2025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에서 그동안의 활동 공적을 인정받아 새마을훈장(노력장)을 수상했다. 성남시새마을회 방영기회장은 '자원재활용 운동, 환경정화활동, 탄소중립운동, 온기나눔 이웃사랑 나눔운동 및 지역사회 활성화 사업, 시민의식 고양 및 현장문화 증진운동 발전에 기여' 등 공적활동에 기여해 훈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제철 신임 성남소방서장 내방

7월 2일(수) 제31대 이제철 성남소방서장이 취임 인사차 성남문화원을 방문해 김대진 한국문화원연합회장 겸 성남문화원장과 환담했다. 한편, 성남문화원과 성남소방서는 지난 2024년 5월에 지역문화 정보공유, 화재 안전과 정기적인 소방 안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방영기 소리인생 55주년 '2025 우리소리를 찾아서'

12월 18일(목) 성남문화원 부원장인 국가 무형유산 '선소리산타령' 전승교육사 방영기 명창의 소리인생 55주년 기념하는 '2025 우리소리를 찾아서' 공연이 성남아트rium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공연은 방글 사회로, 성남이 낳은 천상의 소리꾼이자 '선소리산타령' 전승교육사인 방영기 명창의 소리 인생 55주년을 기념하는 무대로 마련됐다.



손성종 재심양대한체육회장 둔촌중국백일장 진행 소장 위촉

김대진 한국문화원연합회장 겸 성남문화원장은 8월 7일(목) 중국 심양시에서 25여년간 성남시와 국제 자매도시인 심양시와 문화예술 교류 증진에 힘쓰고있는 손성종 재심양대한체육회 회장(前심양시 한인회 부회장, 동북3성 한국인회 사무총장)과 환담하며, 성남문화원 주최 <2025년도 제20회 둔촌 중국백일장> 심양시 진행 소장으로 위촉장을 수여했다.



판교낙생농협, '2025 명품 송년음악회' 정재영 부원장(판교낙생농협 조합장) 주최

창립 55주년 기념하는 제9회 '2025 명품 송년음악회'가 12월 26일 판교낙생농협 본점 아트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대진 원장,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농협 이사·조합원, 지역주민들이 전석 매진으로 함께했고, 공연은 리더스 필하모닉오케스트라(26인조) 김낙구 교수의 지휘로, 트롯스타 김용필, 한혜진, 신성 가수들이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며 감동의 무대로 선사했다.



성남문화원, 서현문화의집 위탁 운영 2025년 9월 1일부터 3년간

성남문화원은 2025년 성남시문화의집 운영위원회의 위탁 심의 결정에 따라, 성남 서현문화의집을 지난 9월 1일부터 3년간 위탁 운영하게 됐다. 2002년 7월 29일 개관한 서현문화의집은 시민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시민들의 건강하고 창의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시민들의 생활예술센터이자 '문화로 공동체를 일궈 나가는 열린 공간'이다. 2007년부터 8년간 서현문화의집을 위탁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강생 등 이용자들의 안전과 생활 속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문화 거점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3년간 서현문화의집을 이끌어 갈 관장에는, 사회복지사, 숲·자연해설사, 소방관리사인 홍진영 관장이 임명됐다.



이형복 부원장, 경인봉사대상 '수상' ... 성남시 무료급식소 쌀 40포대 '쾌척'

성남문화원 부원장인 성남농협 이형복 조합장이 경인봉사대상 수상 기념으로, 성남시 무료급식소에 우리쌀 소비 촉진을 위한 10kg쌀 40포대(130만원 상당)를 기증했다. 이형복 조합장은 지난 12월 4일 경인일보에서 주관하는 경인봉사대상에서 농업인 부문 2025년 가장 빛난 얼굴로 선정됐다. 이형복 조합장은 "수상의 영예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자 쌀 기부를 결정했다"면서 "성남농협은 평소에도 꾸준한 사회공헌활동과 나눔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농협 구현에 앞장서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과 복지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성남문화원, 문화의집 이교자 여사 퇴임

이교자 여사께서 성남문화원, 문화의집에서 22년9개월간 근무하고 2025년 12월 31일자로 퇴임하였다. 김대진 원장은 재직 기념 퇴임패를 전달하고 직원들과 식사 자리를 마련하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남상목 의병장 손자 남기형 기념사업회 명예회장 별세

지난 6월23일 성남 판교 출신의 항일 의병장 동천 남상목 선생의 손자 남기형 (사)남상목 의병장 기념사업회 명예회장이 영면에 들었다. 남회장은 성남문화원과 20여 년간 함께하시면서 '성남항일의병기념탑 건립'에 큰 기여를 하였고 성남 의병축제, 성남 3.1만세운동 기념식, 성남 광복절 경축식, 경기 남한산성권 순국선열 추모제 등 많은 보훈 행사 추진과 성남시 독립운동사 자료집 발간 등 호국보훈의 도시를 위해 많은 일들에 앞장서왔다. 또한 남상목의병장 기념사업회 회장으로서 '남상목 의병장 순국 추모제'와 '찾아가는 독립운동교실' 교재 발간, '안중근 기념관 등 보훈 시설 청소년 탐방행사, '남상목 의병장 영상 제작', '독립운동가 독서 유튜브대회'를 개최해왔다.

윤종준, 성남문화원 성남학연구소 상임위원 타계

지난 8월 31일 윤종준 상임위원이 60세의 일기로 타계했다. 윤 상임 위원은 성남문화원에서 19년간 근무하며, '성남학' 강좌 운영, 『성남문화연구』에 다수 논문 게재, 성남 지역의 역사·문화·지명·인물사 연구에 참여했고, 성남 향토사 자료·기록 조사, 지역의 유적과 인물사에 대한 자료 조사와 기록 정리에 관여하며, 성남문화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에 공헌해 왔습니다.

성남시민과 함께 하는 2025 향토유적지순례



제3차 향토유적지순례 - 충북 영동군 일대

9월 12일(금) 성남시민 40여명과 함께 충북 영동군 일대로 제3차 향토유적지순례 답사를 다녀왔다. 이번 답사는 지난 3월 영동군과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성공지원 업무 협약을 한 '2025영동세계국악엑스포'를 방문해 세계 각국의 공연과 전통국악을 관람 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이후 영동와인터널을 관람하면서 여러나라의 와인의 역사와 제품을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제4차 향토유적지순례 - 경남 김해시 일대

9월 26일(금) 전국 232개 문화원연합체인 한국문화원연합회와 김해문화원이 주최, 주관하는 '2025 지역문화박람회 in 김해'에 참관했다.

작년 부산에 이어 올해 김해시에서 개최된 지역문화박람회는 전국 16개 시·도 및 232개 지역문화원 대표 콘텐츠를 전시, 지역의 특색을 살린 공연 무대, 체험 부스 등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제5차 향토유적지순례 - 경기 남양주 일대

11월 14일 문화가족, 시민 등 40여 명과 함께 경기 남양주시 일대로 제5차 향토 유적지순례 답사를 다녀왔다.

첫번째 코스는 고종과 명성황후가 안장된 홍릉(洪陵), 순종과 두 황후가 안장된 유릉(裕陵)을 합쳐 부르는 명칭인 홍유릉을 방문했다.

두번째 코스는 체험 중심의 생태 수목원으로, 자연 속에서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인 물맑음수목원에서 평화로운 자연 속에서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세번째 코스는 남양주시의 대표 문화재이자 많은 분들이 방문하는 필수 코스인, 다산 정약용 선생 유적지에서, 조선시대 양반가 건축과 학문 정신을, 다산의 정신을 잇는 실학박물관에서는 정약용 선생에 대하여 해설사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6차 향토유적지순례 & 하반기 성남학 현장답사 - 경북 안동시 일대

12월 2일(화) 문화학교(교장 홍연화 성남시 공예명장 제1호), 성남학아카데미(소장 최명숙 문학박사) 수강생, 시민 등이, 경북 안동시 일대로 올해 마지막 6차 향토유적 지 및 성남학아카데미 합동 답사를 다녀왔다.

이날 첫 번째 코스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봉정사는, 태장리 천등산에 위치한 신라시대 때부터 이어져 온 사찰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이며 국보 15호인 극락전 대웅전 등이 있었다.

두번째는 경상북도 안동시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과거 안동역이 있던 부지를 활용해 조성된 공간인 중앙선1942안동역의 역사를 둘러 봤다.

세번째 코스는 안동시의 대표 문화재이자 국내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회마을을 돌아보면서 2025년 마지막 향토유적지순례 및 성남학 현장답사를 마쳤다.

사진으로 보는 성남문화원



참여의 문화, 나눔문화의 산실
성남문화원